

# 돈이 돌지 않는 해운업 헤지펀드엔 투자 기회

## ASK 2016 릴레이 인터뷰 ① 오마르 코드마니 인트러스트퍼멀 대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곳에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운업에 대한 직접 대출은 헤지펀드들에 좋은 기회죠.”

영국 재간접 헤지펀드 운용사 인트러스트퍼멀의 오마르 코드마니 대표(사진)는 오는 18~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ASK 2016-글로벌 사모-헤지펀드 서밋’을 앞두고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헤지펀드는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자”라고 소개했다. “자금이 필요하지만 유동성을 공급받지 못하는 업종이나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헤지펀드 투자의 시작”이란 설명이다. “시장에서 자금의 수요-공급 불일치가 생긴 곳을 발견한 뒤 수익률과 안전성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서 돈을 벌는 게 헤지펀드 투자의 기본”이란 것이다.

코드마니 대표는 자금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해운업’을 꼽았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 데다

‘자금 불일치’ 일어나는 곳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어

마이너스 금리 시대 진입 대체투자 늘릴 수밖에 없어 한국 전자상거래-인터넷株 관심

유럽 은행들에 대한 자본건전성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해운사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란 진단이다. 그는 “해운업 영역에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많다고 믿는다”며 “다른 업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 대출 및 기업 인수합병(M&A) 시장도 최근 유동성이 부족해 차익을 얻을 기회가 많다”고 덧붙였다.

코드마니 대표는 최근의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해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이 금융시장과 자산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봤다. 또 “세계적인 저성장 우려와 주요국의 정치 리스크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도래했고 주식시장도 더 이상 저평가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대체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는 “한국 기관투자자들도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최근 수익률이 높은 투자 자산을 고르는 것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트러스트퍼멀은 한국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코드마니 대표는 “한국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나 검색엔진 업체 등에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 투자를 늘리는 데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트러스트퍼멀은 헤지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운용사(펀드오브펀드)다. 연기금 공제회 등 투자자들로 부터 위탁받은 돈을 여러 유형의 헤지펀드에 분산 투자한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260억달러(약 30조 원)의 투자금을 굴리고 있다.

코드마니 대표는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뉴욕대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따다. 2000년 인트러스트퍼멀의 전신인 퍼멀그룹 대표를 맡았다.

유청재 기자 yoochool@hankyung.com

### ASK 2016-사모헤지펀드 서밋

- ◆일시: 5월 18-19일
- ◆장소: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 ◆문의 및 신청: 홈페이지(www.kedask.com), ASK서밋 사무국

### 한화투자증권 여의도 사옥 한화손보에 팔린다

한화투자증권이 서울 분사 사옥을 계열사인 한화손해보험에 매각한다. 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화투자증권은 서울 여의도 사옥을 한화손해보험에 1327억원에 매각한다고 9일 공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달 내로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 및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매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부분 증권사가 대규모 흑자를 냈지만 한화투자증권은 영업손실 166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적자를 내다 2014년 88억원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지만 지난해 다시 고꾸라졌다. 올해 1분기에는 7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891@hankyung.com

## 바나나 열풍인데... ‘개미’들은 안 반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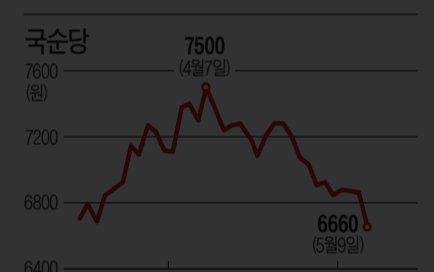
(개인투자자)

### 이색리포트

#### 오리온·롯데제과·국순당 신제품 출시 후 주가 ‘덤덤’

최근 식품업계에서 바나나맛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업체 주가는 그다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이 9일 오리온, 국순당, 롯데제과의 주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오리온이 ‘초코파이 바나나’를 출시한 3월7일 이후 2개월여간 주가는 7.19% 올랐다. ‘국순당 쌀 바나나’ 막걸리를 내놓은 국순당은 같은 기간 1.98% 오르는 데 그쳤다. ‘몽쉘 초코&바나나’를 비롯해 다양한 바나나



맛 제품을 출시한 롯데제과는 액면분할 결정으로 매매가 정지된 지난달 27일까지 3.01% 상승했다.

송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바나나 제품이 식품업계를 주도하는 트렌드로 지목되며 미디어 홍보 효과를 누렸는데도 관련 업체 주가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라며 “지난해 인기를 선도한 과일맛 소주, 프리미엄 라

면과 비교했을 때 이들 업체는 ‘바나나 트렌드’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프리미엄 라면 싸움을 내놓은 농심 주가는 이후 7개월간 70% 급등했다. 크라운제과 주가도 2014년 허니버터칩 효과로 7개월 동안 세 배 넘게 올랐다.

최근 음식료업체 주가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데다 신제품 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과일맛 소주와 프리미엄 라면이 돌풍을 일으키다가 잠잠해진 것처럼 바나나 제품도 ‘반짝 인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제품 효과가 직접적인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만기연장 반대

## 딜라이브 2.2兆 인수금융 연체 위기

(예 씨앤엠)

### 13일까지 이자 못내면 대주단 수천억 총당금 쏠아아

국내 케이블TV업계 3위 업체인 딜라이브(예 씨앤엠)의 2조2000억원 규모 인수금융 만기 연장이 국민연금 등 일부 대주단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일부 딜라이브 대주단은 인수금융 만기 연장 및 채무조정안에 이견을 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로 인해 딜라이브 지분 93.81%를 갖고 있는 특수목적회사(SPC) 국민유선방송투자는 지난달 29일 인수금융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했다.

MBK파트너스와 맥쿼리는 2007년 국민유선방송투자를 통해 딜라이브를 사들이면서 국민연금 등 22개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2조2000억원을 빌렸다. 오는 7월 만기를 앞두고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맥쿼리는 지난해부터 딜라이브 매각을 시도했으나 담보 상태에 빠져 있다.

한 대주단 관계자는 “오는 13일까지 국민유선방송투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딜라이브 인수금융이 연체 상태로 기재대 대주단은 수천억원 규모 총당금을 내부에 쏠아야 한다”고 전했다.

MBK파트너스와 맥쿼리는 딜라이브

의 채무 상환 여력이 떨어지자 2조2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중 8800억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같은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리를 깎은 뒤 만기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금융운용분부는 최근 이 같은 채무조정안을 대체투자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안전 통과를 위한 정족수(재적위원 3분의 2 총석 및 총석 위원 3분의 2 찬성)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12일 대체투자위원회를 다시 열어 만기 연장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정상 여신을 출자전환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국내 시중은행, 공제회, 보험사 등 20개 금융사는 만기 연장과 채무조정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의 인수금융 규모는 총 5600억원으로 전체의 25% 정도다.

13일까지 딜라이브 인수금융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에 해당한다. 대주단은 담보권을 행사해 딜라이브 주식을 인수금융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장동욱/이동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

▶마켓인사이드 5월9일 오전 11시36분

### 美 화장품 원료社 잉글우드랩, 코스닥 ‘노크’

#### 中 오가닉티코스메틱도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외국 기업 두 곳이 9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공식화했다. 미국 화장품 원료 전문업체 잉글우드랩과 중국 유아용 화장품 생산업체 오가닉티코스메틱은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2004년 설립된 잉글우드랩은 미국 뉴저지주에 본사를 두고 노화 방지, 자외선 차단, 미백 등 기능성 기초 화장품 원료를 생산해 글로벌 화장품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화장품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은 색조 화장품, 보디케어 제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데 쓸 계획이다. 상장 주관은 하나금융투자가 맡았다.

지난해 매출 612억원, 당기순이익 45억원을 올렸다. 전년에 비해 매출은 40%, 당기순이익은 12%가량 늘어난 수치다. 잉글우드랩이 코스닥시장에 입성하면 한국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미국 기업이 국내 증시에 오른 세 번째 사례가 된다.

오가닉티코스메틱은 중국 중견 유아용 화장품 생산업체인 하이원약품이 한국 상장을 위해 홍콩에 세운 지주회사다. 하이원약품은 해초와 채소 등 천연 재료를 사용해 베이비로션이나 파우더 등을 제조해 판매한다. 지난해 매출 1361억원, 당기순이익 346억원을 거뒀다.

회사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주당 3200~3700원이다. 1430만주를 공모해 457억~529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유선투자증권이 상장 주관을 맡았다. 심사를 통과하면 6개월 안에 상장해야 한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 2016 Single Life Festival

##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1인 트렌드의 모든 것!

- 수요자가 직접 방문하는 비즈니스 마켓,
-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확대의 기회,
- 1인 가구 대상 통합마케팅의 장!

### 참가업체 모집!

유통

식품/외식

가구/가전

문화

서비스

정책

### 참가신청 및 문의

한국경제신문 문화전시사업팀 TEL. 02-360-4507, 4519 FAX. 02-360-4503 E-mail. jkim@hankyung.com	코엑스 전시팀 TEL. 02-6000-1109, 1108 FAX. 02-6944-8303 E-mail. sun@coex.co.kr
---	---

홈페이지: www.singlefest.kr, www.singlefestival.kr

주최: 한국경제신문, coex

## 싱글 라이프 페스티벌 2016

2016. 6. 30(목) ~ 7. 3(일) / aT센터 제2전시장 (3F)